

# 고용사업장에 안전文化 정착

##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예방 캠페인 실시

서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지청장 시민석)는 지난 29일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주 100여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재해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른 산업인력 수요증가 및 내국인근로자의 3D업종 기피현상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재해는 꾸준히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3D업종에 종사하며 작업환경이 생소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워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전달과 교육이 어렵고,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열의가 부족할 경우 내국인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산업재해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이날 행사는 노동부 시민석 의정부지청장과 유재삼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장, Liam



서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지청장 시민석)는 지난 29일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주 100여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재해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Okoeffie 천주교 의정부이주노동자상담소장, 장명철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북부지회장, 송중렬 대한산업보건협회 경기북부센터사무국장, 엄영섭 산업안전전선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주시 소재 검준지 방산단지지를 포함한 신창섬유, 영은섬유, 협성섬유, 태광산업 등 외

국인고용사업장 100여 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산재예방내책자를 배포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사업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여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했다.

또한 의정부지청에서는 외국인근로자고용 사업장과 더불어 중·소

규모의 산재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관리 참여의식을 향상시키고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해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박영남 기자 varanasee@naver.com

탐방 우리 지역의 사업소 66 보광화학

## 황토+음이온+메모리폼이 어우러진 명품배개



대표 서승재

건강과 배개의 연관성은 의학적인 발표로 인해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왔다. 바른 자세의 수면과 바르지 못한 자세의 수면습관이 인체 골격의 정렬상태와 신경 및 혈액순환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정설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인생의 1/3은 잠자는 시간이라고 한다. 우리는 잠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있으며 편안한 수면을 위해서는 자신의 체형이나 습관에 따라 배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보광화학(포천시 근내면 757-1 대표 서승재)은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 살고있는 현대인들의

수면을 제공하고 있다. 황토+음이온+메모리폼으로 만들어진 명품배개는 자기체적의 600배 산소흡착력으로 강력한 음이온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냄새 탈취효과, 유해세균 제거, 원적외선 복사, 신진대사 및 혈액순환 촉진 등 다양한 기능을 겸비하고 있다.

보광화학의 독특한 기술력과 첨단과학으로 탄생시킨 명품배개인 셈이다. 사람의 정기와 식물의 냉기가 만나면 와사품이 될 수 있고 여자의 냉증을 유발하기도 하며 시멘트와 만나면 체내의 음이온 상실로 피로하고 무기력해 지지만 황토의 양기와 만나면 활력이 증진되고 건강한 체력을 유지한다고 한다.

또한 참숯+음이온+메모리폼으로 만들어진 배개가 있다. 숯은 원적외선을 발생시켜 공기중의 수분을 분산, 음이온을 발생시켜주는 동시에 심신안정효과, 냄새제거효과, 피부보호효과, 전자파 차단효과, 수분흡착효과, 수질정화효과 등의 다양한 효능을 자랑하고 있다.

서 대표는 10여 년 동안 서울에서 배개공장을 운영하다가 3년 전 상거 소재지로 자리를 옮겨 와선 배개 생산업체 최고 위치를 향해 매진하고 있다.

서 대표는 "주어진 일에 열심히 일하자" "성실하게 살자"란 운영 정신으로 그 어떠한 배개보다 편안하고 인체에 좋은 배개생산에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 쾌적한 수면을 위한 기능성 배개 생산에 주력

### 업계 선두를 지향하며 연구와 노력에 몰두

편안한 수면을 위해 고안되고, 한국인의 체형에 맞는 배개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업체다.

예로부터 배개는 침구류에서 빠지지 않는 품목이며 신조들은 왕겨, 매밀, 나무, 콩 등을 배개속에 넣어 쾌적하면서도 편안한 수면을 위해 노력해 왔다. 옛 문헌을 살펴보면 임금이나 황제들이 사용한 배개속에는 천연옥이나 맥반석 등을 이용했다고 전해오는데 천연옥이나 맥반석을 이용한 배개는 혈액순환을 도와줄 뿐 아니라 고유의 자기장은 인체의 생체리듬을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현재 보광화학에서 생산하고 있는 메모리폼 경주지배개는 충격흡수 능력과 탄력성을 겸비한 우수한 제품이다. 부드럽고 탄력성을 겸비해 늘린 후에도 서서히 원상태로 회복하는 형상기억능력을 가지고 있다.

누워 있을 때 바닥과 경주사이의 부자연스러운 공간을 채워주고 받쳐주는 기능을 해 편안한

이웃집 아저씨와 같은 친근한 인상과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가 돋보이는 서 대표는 "10여 년 넘게 동고동락해온 50여 개의 협력업체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고객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제품 생산으로 보광화학의 브랜드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3년 동안 포천에서 생활하며 포천의 자연경관과 사람들이 좋아서 포천을 제1의 고향으로 생각하며 사업에 전념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수면시 좋은배개는 두통, 수면장애, 목 디스크, 편두통, 어지럼증, 손발 저림, 코골이, 요통, 여성 등의 목주름 및 앞면 주름발생을 등을 예방한다고 한다.

즉 편안한 수면은 건강한 삶을 만들며 건강한 삶은 성공한 인생을 성공한 인생은 행복한 삶을 영위한다며 쾌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031)536-0967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 “산업안전 예방 위해 5개 건설회사 뭉쳤다”

### 경기북부지역 최초로 ‘건설안전체험장’ 설치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원장 유재삼)은 지난 29일 경기북부지역 최초로 5개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투자한 건설안전체험장 개장식을 서울 의정부 녹양사업단 공사사무실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건설안전체험장 준공의 배경으로는 경기북부지역내의 2005년 건설재해분석 결과 중소규모 건설현장(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에서 집중적으로 재해가 발생하였고 재해발생 유형으로는 추락 및 낙하비래 재해형 재해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향후 이와 같은 유사 반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2006년 건설재해예방 대책으로 중·소규모 건설현장 지원강화에 따른 추락 및 낙하비래 중점 기술지원과 관할 지방노동청과의 위험상황보고 체계강화 및 근로자 안전교육 집중지원을 통한 안

전의식을 고취시킴과 확인대상 건설현장 기술지원 내실화와 대형사고 위험건설현장 기술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안전체험교육장은 동우개발 동양고속건설(소장 전재우), (주)서희건설(소장 정영기), 삼중종합건설(주) (소장 박종일), 동원시템즈(주) (소장 김영찬), 풍림산업(주) (소장 김상철) 등 5개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시공하였으며, 그 규모는 지상 3층 구조로 건평은 약 60평(200㎡)이고 운영기간은 지난 5월 23일부터 오는 2007년 10월 30일(약 17개월) 동안 관련 근로자 10,000여명을 대상으로 건설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세부 교육시설현황으로는 추락(가설경사로체험, 대형개구부체험, 불량통로 발판체험, 안전계단발판

체험장, 고소체험장, 안전통로, 추락방지망 테스트, 추락방지망 비교 등 7종), 낙하·비래(낙하물 방지망 1종), 붕괴(동바리설치 비교체험 1종), 감전(가설전기 사용 계시관 1종), 개인보호구(안전그네 테

스트, 안전모 턱 테스트, 안전모 강도 및 충격시험, 안전장갑구 진열대, 안전복장 교육장 등 5종), 기타(사고사례전시 교육장, 소화기 실습 체험장, 철근작업체험교육, 평판대 테스트 등 4종) 등의 교육 시설과 장비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전기요금 20% 할인

### 韓電 포천지점 7월31일까지 소급적용

한국전력공사 포천지점(지점장 )은 2004년3월1일부터 시행해온 중증장애인(1~3급)이 거주하는 주거용 전기요금에 대해 20%할인제도를 비롯해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전기요금할인제도의 소급적용시기를 오는 7월3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이 기간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소급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제도를 통해 전기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오는 7월31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한국전력공사 포천지점 관계자는 “현재 포천관내 전기요금 할인 대상자 80%는 신청완료해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받고 있다”며 “나머지 20%를 대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할인대상자는 장애

인의 경우 장애인복지카드와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청구서를 제출하면 되며 수급자 할인은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독립유공자 및 국가상이 유공자(1~3급)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전기요금할인제도는 다음과 같다. ▶중증장애인(1~3급)이 거주하는 주거용 전기요금: 20% 할인(2004.3.1시행) ▶국가상이 유공자(1~3급)가 거주하는 주거용 전기요금: 20%할인(2004.3.1.시행) ▶독립유공자가 거주하는 주거용 전기요금: 20%할인(2005.12.28시행)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거용 전기요금: 15%할인(2005.12.28시행)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은 지난 29일 경기북부지역 최초로 5개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투자한 건설안전체험장 개장식을 서울 의정부 녹양사업단 공사사무실에서 실시하였다.

## 사제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됩니까?

아파트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써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존 소유주택(구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철거일 중 빠른 날,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와 다른 1주택 또는 다른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에 대한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격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매매사제가격, 감정가격, 환산가격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격 또는 양도가격을 추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

- 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산사례▶  
 양도가액:150,000,000원(실지거래가격)  
 취득가액:100,000,000원(실지거래가격)  
 필요경비:5,000,000원(중개수수료등)  
 보유기간 : 6개월(1년 미만)  
 신고여부 :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
- (1) 양도차익=150,000,000원(양도가액)-100,000,000원(취득가액)- 5,000,000원(필요경비)=45,000,000원
  - (2) 과세표준=45,000,000원(양도차익)-2,500,000원(양도소득기본공제)=42,500,000원
  - (3) 세율=50%(1년 미만 보유시 적용되는 세율)
  - (4) 산출세액=42,500,000원(과세표준)×50%(세율)=21,250,000원
  - (5) 납부세액=21,250,000원(산출세액)-2,125,000원(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9,125,000원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031-870-4252

## 산업안전사고 예방

### 천장크레인 설치작업 중 거더 낙하

재해발생은 신실공장 현장에서 천장크레인을 설치하기 위해 이동식 크레인으로 거더(4.6톤)를 주행레일 위에 설치된 새를 위로 인양하던 중 거더 상부 리프에 체결한 달기체인이 파단되면서 거더가 낙하하여 그 밑을 지나가던 재해자가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이다.

재해발생 원인은 고리걸이 체인을 사용하여 인양작업시에는 안전계수 5 이상의 파단하중을 가진 체인을 사용하여야 하나 거더의 중량이 4.6톤(메달기 각도 60°)으로 한 줄에 걸리는 장력이 2.7톤이므로 파단하중이 13.5톤 이상의 체인을 사용하지 않고 파단하중이 10톤인 체인을 사용하여 낙하의 위험이 있었고, 이동식크레인 작업시 낙하물에 의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영역 내에 근로자가 출입하여 낙하에 의한 사고의 위험이 있었다.

또한 중량물 인양 및 크레인 작업시 신호수를 배치하여 일정한 수신호



재해발생상황도

를 정하여 중량물을 운반하여야 하나 신호수를 미배치 하였다.

동종재해 예방대책은 고리걸이 체인을 사용하여 인양작업 시에는 안전계수 5이상의 파단하중을 가진 체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동식크레인 작업시 낙하물에 의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영역내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26-6091)

## 국민연금 Q&A 수령액이 너무 작아 실질적으로 연금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닌가?

연금 수령액은 3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첫째,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으로 균등분부 금액액을 결정하며, 모든 수급자의 급여산정시 동일하게 적용된다. 두 번째는 가입기간 중 자신의 평균 소득으로 소득비례부분의 급여액을 결정하며 소득이 높아 연금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경우에는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마지막 요소는 가입기간이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욱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이 3가지 요소를 살펴보면 왜 현재의 많은 국민연금수급자의 수령액이 적은지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게 신고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 소득비례부분의 급여액이 낮은데다 가입기간도 짧으므로 급여액이 낮을 수밖에 없다.

수령액이 너무 작아 실질적으로 연금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닌가?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고 가입기간이 길면 향후 적절한 연금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노후'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국민연금 시행된지 19년째다. 시행기간이 짧아 현재 수급자들의 평균 가입기간이 8년이 채 못되는 점도 이유다. 앞으로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평균 연금액도 올라갈 것으로 본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20년 가입 기준으로 할 경우 수익률은 8~12%에 이른다.

예를 들어 월소득 100만원을 신고해 5년간 보험료를 냈던 K(60)씨의 경우엔 매월 10만원 가량 받게 된다. 적은 돈이지만 2년 2개월만 받으면 그가 낸 연금은 모두 받게 된다. 기대수명(78세)만큼 살면 그가 받은 돈은 낸 돈의 8.9배나 된다. 수익률이 가장 높은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인연금 등으로 보완하는 게 지혜로운 노후설계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의정부지사 031-877-5662